

# 광주시, 안전하고 편안한 설연휴 종합대책 시행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명절 시민생활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 대설·한파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 또 120콜센터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가스 공급업소, 민원 발급기 운영 여부 등을 안내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민생활 안전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 안정 등 3개 분야, 12개 항목, 47개 과제로 추진된다.

◇ 시민생활안전 대책  
시민생활안전 대책 분야는 ▲광주전남 통합 대시민 홍보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귀성객 교통소통 및 성묘객 편의 ▲소의 이웃 지원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7개 항목, 36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광주시는 안전한 명절 연휴를 위해 재난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2월 14~18일 종합상황실 운영... 각종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영락공원 시내버스 경유·연장 운행 등 성묘객 교통 편의 제공

응급의료기관 25곳, 문어는 병원·약국 운영 등 진료공백 방지

에 적극 대응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 지원15번, 용전 86번, 518번은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한다. 설 당일인 17일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18번 버스를 증차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수송대책을 시행한다.

또 모든 시민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집중 발굴·지원하고, 취약 노인·저소득 아동 등에게도 누수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한 급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거리 가계,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 일제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분야는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유지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등 2개 항목, 4개 세부과제로 추진된다.

명절기간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25곳과 문어는 병원·약국을 운영하는 등 차질 없는 의료서비스도 제공한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휴기간 문어는 병원·약국은 광주·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휴 기간에도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밤 12시까지, 광주센트럴병원은 밤 11시까지, 아이맘아동병원·북구미래아동병원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물가안정대책 분야는 ▲소상공인 및 상권 회복 대책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

성화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등 3개 항목, 7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가격표시제 실행을 점검하는 등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광주시는 특히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도시철도 2호선 공사구간 지역 상생체 크카드 추가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 환급 10%에 공사 구간 인근 23개 행정동 소재 가맹점에서 10%를 추가, 총 20%를 환급함으로써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 공정회 및 온·오프라인을 통해 귀성·귀경객 및 일반시민들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필요성 및 공감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수민 자치행정과장은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급수·교통·환경·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춘 기자

## 전남도, 12일까지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업체 공모 HACCP 인증·냉장 유통체계 등 갖춘 업체 대상

전남도가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과수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2026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사업' 공급업체를 오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전남도는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먹거리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업체를 직접 선정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업'이나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업체 가운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갖추고, 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는 업체다.

또한 전남에서 생산한 친환경 인증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과일을 활용해 컵과일·파우치 등 아이들이 먹기 편한 신선편이 형태(1회 120~150g)로 제조하고, 냉장 유통(콜

드체인) 시스템을 통해 학교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

참여를 바라는 업체는 12일까지 전남도 식량원에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3월께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신학기부터 본격적인 과일 간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는 권역별로 지역 초등 늘봄학교 등에 연간 30회(주 1회 내외) 제철 과일을 간식 시간 2시간 전까지 공급하게 된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위생 시설과 공급 역량을 갖춘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란다"며 "전남의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이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한 심사를 통해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 동구 인문학당, 문체부 제2기 '로컬100' 선정 근대가옥과 현대건축 조화 이룬 지역문화공간 인정

광주 동구는 대표적인 인문공간인 동구 인문학당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 '로컬100' 2기(2026~2027)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로컬100'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담고 있으면서도 매력과 개성이 뚜렷한 문화자원을 전국에서 찾아내, 홍보와 연계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이번 2기 공모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민 추천을 통해 약 1천 개의 지역문화공간과 콘텐츠가 접수됐으며, 1차 심사를 거쳐 200곳이 후보로 오른 뒤 온라인 국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합산해 최종 100곳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이름을 올린 동구 인문학당은 오래된 주거 건축을 보존·재생한 근대가옥의 정취와 현대 건축의 세련된 감각이 한 공간 안에 공존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서와 기록을 전시하는 조용한 책 공간부터 음악과 영화, 음식,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어우러지는 열린 공간까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주민들은 이곳을 통해 강연과 워크숍, 소규모 공연, 생활문화 프로그램 등에 상시로 참여하며 동구 인문학당을 동네의 인문 거점이자 생활 문화 사랑방처럼 이



용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개관 이후 동구 인문학당은 지역의 인문 자원을 현대적인 콘텐츠로 다시 엮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주민들의 인문적 감수성과 문화적 삶의 질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흐름은 각종 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3년에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이자 최우수상 격인 대상을 받으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2024년에는 광주광역시가 선정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을 수상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오철수 기자

## 서구, 설 맞아 온누리상품권 4억원 환급행사 전국 유일, 선할인에페이백까지 최대 15% 할인 효과 누린다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5%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최대 5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구입 시 10% 선할인 혜택이 제공돼 페이백과 함께 최대 15%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주민들의 체감 혜택이 더

욱 커질 전망이다.  
전국 지방정부 중 유일하게 온누리상품권 환급 정책을 펼치고 있는 서구는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경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번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 1월부터

주간 단위로 페이백 행사를 운영해 왔으며 4주간 10만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4억원의 할인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페이백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며 "골목상권에는 힘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풍성한 설 선물들이 되는 '착한 경제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우 기자

합평군 공고 제2026 - 99호

### 합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월야면사무소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위한 합평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 27.

### 합 평 군 수

1.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종류	구분	폭원							
기점	소로	3	76	4-8	95	월야면 월야리 종로 1-902	월야면 월야리 소로 3-902	일반 도로	-	전남도 고시 제190-15.8.190.219
변경	중로	3	A	12	95	월야면 월야리 종로1-902	월야면 월야리 소로3-902	일반 도로	-	전남도 고시 제190-15.8.190.21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 경 사유
소로 3-76	중로 3-A	□ 폭원 및 진행변경 - 기점 : B = 4-8m, L = 95m - 변경 : B = 12m, L = 95m	□ 주민 불편 사항 개선 및 도로 확장으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제공하여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로 폭원 변경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 1. 27. ~ 2025. 2. 9. (14일간)  
나.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 합평군청 본청3층 지역개발과  
다. 관계도서 : 계획생략(합평군청 지역개발과, 월야면사무소)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평군청 지역개발과 (061-320-1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2026  
나주 방문의 해

nownaju